

존 웨인의 죽음

송 명 재

한전 전력연구원 방사선안전그룹장

“신 이어! 왜 제게 미래를 보는 눈을 주셨습니까?” 하고 외친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의사, 약사이면서 점성가, 예언자로 유명하다. 특히 인류 미래에 대한 그의 탁월한 예언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예언들을 사행시로 써서 「세기들」이라는 예언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속에는 당시 프랑스의 왕인 앙리 2세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리라.

결투장에서 일대일 시합에 의해……”

앙리 2세는 예언서대로 후에 결혼식장의 행사중에 젊은 근위 장교와 마상 경기 시합 도중 사고로 사망하였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유명한 예언 중에는 핵무기 개발에 관한 것도 있다. 가공할 위력을 가진 불이 일본 열도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대지를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예언에 따라(?) 핵무기가 개발되었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큰 재앙이 내려졌다. 원자 폭탄의 위력을 실감한 미국에서는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 나갔다.

사막 지대가 많은 미국의 네바다 주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이다. 51년부터 58

년까지 7년 사이에 이곳에서 무려 97회의 핵무기 폭발 실험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핵폭발 실험은 주로 바람이 이웃에 있는 유타 주로 불 때 시행된 적이 많았다고 한다.

유타 주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 세인트 조지는 네바다 주의 핵폭발 실험 장소로부터 약 2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다. 세인트 조지는 전형적인 서부 영화 촬영에 알맞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존 포드 감독의 영화 「역마차」에서 링고 키드 역을 맡아 유명해진 명배우 존 웨인은 세인트 조지에서 영화 촬영을 자주 하였다고 한다. 서부 영화의 최고 명배우인 존 웨인은 77년에 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존 웨인이 죽자 일부 사람들은 그가 왜 암으로 죽었는지에 대해 수군거렸다.

어떤 일본인 작가는 「존 웨인이 왜 죽었는가?」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 일본인 작가의 말에 따르면, 존 웨인은 세인트 조지에서 영화를 촬영할 때 네바다 사막에서 핵폭발 실험 때 생긴 방사성 낙진이 날아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영화 촬영을 하면서 방사성 낙진을 많이 마신 존 웨인은 방사선의 후유증으로 폐암에 걸렸을 것이라고 그 작가는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로 유타 주에 사는 양들도 원폭 실험이 실시될 무렵에 많이 죽었다고 하였다.



존 웨인의 경우 방사능 때문에 폐암에 걸렸는지, 아니면 담배나 흡연 때문인지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의학적으로도 방사선으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암에 걸릴 가능성이 16.08%로 된다고 하는데, 흡연 때문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낮은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간접적으로 존 웨인의 폐암 발생 원인이 방사선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 일본인 작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존 웨인이 세인트 조지에서 영화 촬영시 방사성 낙진을 덮어썼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다.

존 웨인은 세인트 조지에서 로케이션을 한 지 10년 후에 폐암에 걸렸다. 일반적으로 암은 그 발생원에 노출된 지 10~20년 후에나 진단이 가능한 점으로 볼 때, 존 웨인이 정말로 방사성 낙진을 뒤집어썼다면 방사선으로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암의 발생에 대한 학설은 구구하지만 최근 들어 그 발생 원인이 상당히 많이 밝혀졌다.

사람은 누구나 발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발암 유전자는 암 억제 유전자에 의해서 염색체 속에 깊이 숨어 있어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DNA가 여러 가지 발암 요인에 노출이 되면, 속에 숨어 있던 발암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발암 유전자가 활성화된 세포는 빠른 세포 분열을 통해 암으로 발전한다. 보통은 발암 요인에 노출이 되어 암으로 발전되기까지는 10~20년 정도가 걸린다. 이 기간을 잠복기라고 하며, 암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조금씩 달라진다.

염색체 속에 숨어 있는 발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발암 인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햇빛 속의 자외

선은 물론이고 PCB 등 각종 화학 물질이나 니켈·크롬 같은 중금속도 발암 인자이며, 담배나 햄버거 속의 일부 물질과 공기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라돈 가스도 암을 유발시킨다.

방사선은 이러한 수많은 발암 요인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 발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존 웨인의 경우 정말로 방사능 때문에 폐암에 걸렸는지, 아니면 담배를 심하게 피워 폐암에 걸렸는지 분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사성 낙진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면 영화 촬영진 모두가 폐암에 걸려야 이치에 맞는데, 다른 사람들의 경우 폐암에 걸렸다는 보고가 없었다.

참고로 방사선에 의해 암에 걸릴 가능성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10rem(10,000mrem)의 방사선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암에 걸릴 가능성이 16%에서 약 0.08%가 올라가 16.08%로 된다고 한다.

이는 방사선으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간접적으로 존 웨인의 폐암 발생 원인이 방사선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방사선으로 인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